

# 페르시아灣 産油國들의 힘의 결정체 GCC

## 創設3주년..... 그 實體를 분석해본다

지난 5월 25일로서 GCC(Gulf Co-operation Council)가 創設 3주년을 맞았다. 걸프協力委員會(GCC)의 創設 목적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의 정치, 경제적인 협력을 도모하여 회원각국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자는 것이었으며, 會員國으로는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연방(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등의 6개국이다. GCC의 설립배경과 현재의 위치등을 살펴보기로 한다(편집자 주).

지금부터 3년전 아랍 6개국 특별 정상회의에서 태동한 GCC는 서서히 아랍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은 美國이나 유럽 제국이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아랍권이 統一의 길을 향해 거보를 내디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무총장 Abdulla Bishara 박사는 GCC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그 일환으로 많은 나라들을 순방하고 있다. 그는 최근들어 GCC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점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치상황을 토대로 힘이 증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貿易을 통해서 회원국간의 유대를 공고히 할 수 있어 갈등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GCC는 페르시아만 지역내에서 안정과 장래의 예측에 原動力을 제공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페르시아만 지역뿐만 아니라, 아랍제국들의 안전보장까지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 경제통합정책 진전

처음에는 GCC의 創設이 실현불가능한 허상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으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져 그와 같은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었다. 이미 GCC 국가들은 회원국간에 산업생산과 마케팅의 통일, 공동농업정책의 추구, 공동관세협정, 시민권의 통일 등, 일반무역 및 경제통합 정책을 취할 것에 합의해 금융 투자방면에서 많은 기업체, 기구등을 태동시켰다. 통합화의 일반적인 정책은 끊임없이 실천에 옮겨져 무역파트너등 페르시아만 이외의 국가들에게 영향을 발휘하고 있으며, 물자의 구매 및 조달은 물론 위생 등 광범위한 범위까지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Bishara박사에 의하면, 페르시아만지역 市場은 유럽국가들을 비롯한 외국기업인들에게 상당한 도전자로 등장하여 경쟁은 점차적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GCC가 EEC 시장과 같이 되려면 더욱 치열한 경쟁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현상황으로 보아 GCC 共同市場은 1990년까지는 확립될 것으로 보이는데, 1년전 이미 회원국간의 국내제품 거래에는 관세부과가 완전히 철폐되었으며, 다른 것에 대한 관세율도 점차적으로 도입

조정되고 있다. 1981년 5월 조인된 GCC 현장의 원래의 기본정신이 바로 이것이며, 기타 교육, 문화, 사회, 위생, 언론, 관광, 입법 및 사법, 기술의 공동개발, 민간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협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CC의 본부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리야드에 있으며, 최고회의, 각료회의 및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랍권의 통일에 대한 정통을 추적해 보면, 기원전 5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아라비아 사막민족(아랍족)은 침략 페르시아民族에 대항하여 단결하여 싸웠다. 그후 石油가 발견되어 잇달아 石油收入이 들어오고 1971년 英國이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철수함에 따라 同지역의 국가들은 국방 및 경제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노선을 걸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에 따른 최초의 정치적인 변화는 1967년의 두바이 協定인데 동협정에 의해 바레인과 카타르를 비롯한 7개 해안토후들이 연합하게 되었다.

### 81년 기본강령 비준

그러나 바레인과 카타르는 후에 연합노선에서 빠지기로 결정하고, 1971년 나머지 7개 토후들이 합쳐 아랍토후국 연방(UAE)이 태동했다. UAE는 Abu Dhabi, Dubai가 맹주국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그의 Sharjah, Ajman, Ummal Qawain, Fujeirah, Rasal Khaimah 등이 있다.

1970년대 중반 오만의 통치자인 Sultan Qaboos bin Said는 페르시아만 각국의 外相들에게 외세의 위협에 대처하는 정책을 촉구한 바 있으며, 1976년 쿠웨이트의 외상을 맡고 있는 황태자는 페르시아만 지역에서의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교육 및 정보분야에서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Gulf Union의 창설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이와같은 논조의 공식회담이 그후 이루어져 동지역의 6개국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던 중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란·이라크 전쟁의 발달등의 사태로 급진전을 보아 1981년 5월 리야드에서 기본적인 강령이 비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여곡절끝에 창설된 GCC가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업적을 보면, 지난해 가을에 설립된 페르시아만 투자공사(GIC)가 손꼽히는데 同公社

의 수권자본액은 21억 달러이며, 6개국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각국은 지분의 49%까지 자국민 또는 회사들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바레인에 있는 페르시아만 국제은행(GIB) 총재로 성공적으로 은행을 이끌어온 사우디의 Khalid al Fayed 박사가 총재로 최근에 임명되었다. 그는 美國에서 공부한 석학으로 동공사의 지상목적을 자본수익을 높이는데 두고 있으며, 자본수익목표를 약 15%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동공사의 투자정책은 위험이 거의 없는 산업, 상업, 부동산 산업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며, 페르시아만 이외의 지역도 투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금융 및 상품시장 뿐만 아니라 광업, 관광업에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설립목적의 하나는 공업, 농업외에도 페르시아만 철도부설등의 교통수단 프로젝트에도 투자 혹은 보증하는 것이다.

### GCC의 기구와 산업정책

GCC에는 최초로 설립된 GIC 외에도 많은 부설 기구가 존재하고 있다. 1975년에 이라크까지 가입시킨 합작은행 GIB, OAPEC 공동소유의 Arab Shipbuilding and Repair Yard(바레인 소재) OMPT C(Arab Maritime Petroleum Transport Company), APICORP(Arab Petroleum Investments Corporation), ARIG(Arab Insurance Group), ABC(Arab Banking Corporation) 등을 열거할 수 있다.

GCC 産業政策의 본질은 제품의 다양화와 市場의 통합을 활성화하는 것인데, 石油化學 분야에서 이들의 업적은 괄목할만하다. GCC는 장차 제품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유럽의 무역파트너들과 활발한 접촉을 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주바일 단지와 같은 대규모 石油化學, 하류부문 프로젝트들의 가동이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시장확보를 위한 협상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GCC 국가들은 회원국간 상호 기술개발 및 이전, 경영기법 등의 이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무역·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페르시아만의 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정치적 군사적인 협조가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안보면에서도 강대국의 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회원국간의 단합에 의한 집단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노선을 걷고 있다.\*

(주간 석유에너지정보)